

연세언론출판협의회 총투표 특집호외

발행 : 연세언론출판협의회 (담당-임수홍)



강경인 투표관리위원회 위원, 사퇴의사 표명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법대대학 학생회장 강경인(법학04)씨가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초 투표관리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법대 회장, 사회대 회장, 치대 회장, UIC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법대 회장의 사퇴선언은 투표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문제가 표출된 사건으로 판단된 바,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보도요청을 받아들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처음에는 학생회칙 개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총투표가 진행될텐데, 이것을 공정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관리위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투표관리위원회의 상과 투표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이 괴리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여 결국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생각하신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어떠하였습니까?

— 기본적으로 투표에 관련한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투표관리위원회의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시행세칙 상에서 개인 혹은 일부 단체에 의해서만 의견이 수렴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칙 개정안과 총투표 진행에 대한 내용을 투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총투표에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다거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투표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퇴를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투표관리위원회의 운영상에서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발견되었던 것은,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부터 구성원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위상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봉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의 논의결과를 거쳐서 확인했으면 한다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생각했던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상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기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투표의 방식이나 실무적인 부분에서부터 입장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관리와 같은 소극적인 부분에서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투표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한 의견수렴과 같은 적극적인 부분까지를 바라봤는데, 그것은 투표관리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투표하는 방식 같은 실무적인 부분에서만 논의를 하는 투표관리위원회가 된 점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안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투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원칙을 만들 것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3:2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 원칙적인 안건들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투표관리의 방식 등의 논의에 대해서도 회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온라인투표입니다. 온라인투표의 경우 투표방식의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총학생회장이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이 아니라 미결로 처리하고 다음 회의로 이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부결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부총학생회장이 이런 억지를 부렸던 것은 당시 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치대 회장이 결석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반여부가 동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의 시행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 사회대 회장이 온라인투표의 시행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급작스러운 온라인투표의 시행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었는데 묵살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시행되는 전자투표인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예방연습 없이 곧바로 학생회칙 개정 같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며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투표의 절차 및 성격 자체가 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차 투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부총학생회장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유출을 막겠으며, 다른 학교에서 온라인투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하면서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치대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면 5명이 결정을 하겠다고 다음 회의로 이월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장이 발생하여 다음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총학생회장이 이전 회의에서 제기했던 온라인투표에 관한 문제제기를 몇 분 만에 브리핑으로 답변을 끝낸 다음에 이것으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찬반여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가 회의에 도착하기 전에 치대 회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3:1로 온라인투표 시행안을 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의결과정에

참석하면서 과연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조 자체부터가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파행적 운영은 결코 투명하게 학우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 총학생회장이 총투표를 발의한 이후에 중운위에서 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투표관리위원 신칭을 받은 후 다음 중운위에서 호선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중운위에 참석을 거의 안 하던 의대, 치대 회장이 갑자기 15차 중운위에서 나타나서는 투표관리위원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UIC 회장의 경우에도 중운위원으로 인준된 이후에 이날 중운위에 처음 참석하여 투표관리위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16차 중운위부터는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투표관리위원으로 호선된 UIC 회장의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 회의에만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사개진을 했던 중운위원들이 아니라, 중운위에 참석하지도 않는 중운위원들이 투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운위원으로서의 의무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관리위원을 뽑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사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투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요.

— 결원에 대한 세부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관리위원회의 남은 위원들이 업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리 : 임수홍)

회칙개정안 사태 진행상황 정리

WOW 총학생회의 총투표 발의로 학교가 온통 시끌벅적하다. 자보와 플레카드,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된 회칙개정관련 논의의 중심은 총어패지 논란으로 시작해 어느새 집행부와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와 있다. 또 그 과정에서 WOW 총학생회의 부족한 여론수렴의지와 독단적 태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신없는 가운데 어느덧 총투표는 시작

되었다. 총투표가 발의된 이후 학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았다.

총투표의 발의에서 임시확운위 소집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출범까지

3월 15일 열린 정기확운위에서 총학생회장 최중우씨는 정칙안건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 한 편의 글을 확운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10분 주어진 휴식시간 동안 단상에

서 읽어내려 갔다. 당시 읽어내려 간 '연세 학생 사회에 드리는 글'에는 총투표를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생 총투표 발의의 "공식 발표"다.

3월 19일 연세춘추에는 "총학생회 대체 기구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총학생회장의 인터뷰가 2면에, 관련기사가 1면에 실린다. 이에 중운위는 학생회칙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시확운위의 소집을 의결하나, 총학생회장은 임시확운위의 소집을 거부한다.

이어 3월 21일 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과 총투표의 일시, 기간을 공고한다. 발표된 회칙개정안에는 총학생회장이 학내인원을 통해 강

조한 '총학생회의 위상격하'와 외부인원을 통해 강조한 '외부단체 가입시 의결과정을 거친다'는 내용 이외에도 동아리연합회가 중운위에서 제외되고, 중운위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3월 26일 총학생회의 회칙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임시확운위가 소집된다. 총학생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확운위는 총학생회의 회칙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 글 발표를 의결한다.

회칙 원안에 총학생회장의 총투표 발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총투표의 일시와 기간까지 총학생회장이 공고한다는 조항은 없다.

4면에 계속

게 사과하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역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협 구성원 여러분,

총학생회는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형태의 언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조차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이번 공청회 역시 충분히 이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언

협은 스스로 이번 공청회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학우들에 대한 사과가 이행되지 않는 한 총학생회는 공청회의 객관성,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 공청회 참석을 거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31일
총학생회장 최중우

총학생회는 딱지놀이를 그만두라

-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

최중우 총학생회장이 「언세언협의 입장글에 대한 답변」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단 언협의 입장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린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공청회를 거부한 총학생회장의 입장이라 하기에는 군색하여 언세춘추, 언세통, 언세편집위원회, YBS와 언세언론출판협의회의 명의로 재답변을 한다.

총학생회장은 공청회 참석거부의 이유로 우선 언세편집위원회의 공대위 참여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언세편집위원회 내부결합의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언세편집위원회가 지금의 사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일단 총학생회장의 정보 수집력에 경의를 표한다. 총학생회장이 개별 언론사 내부의 토론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독립된 언론사의 내부결합에 올라온 게시물을 작성자의 신원까지 완전히 파악하여 인용할 정도의 치밀한 첩보망은 마치 비브라타를 연상케 한다. 이제부터는 소속단위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내부결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조심할 정도로 통신포안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시대가 다가오는 듯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언세편집위원회 내부결합에서 나온 논의를 이유로 총학생회의 공청회 참석거부를 해명하기에는 논거로서 적합하지 않다. 언세편집위원회 내부결합의 게시물은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 있다. 당연히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며, 언세편집위원회가 내부논의를 공식적인 입장과 논조로 채택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장이 언세편집위원회의 내부결합을 사찰,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침소봉대하는 자신의 공청회 참석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진다.

총학생회장은 공청회 참석거부의 다른 이유로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의 패널 참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청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으며, 총학생회의 독선을 여실히 드러내는 논거로 판단된다.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을 패널로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학내언론사들이다. 학생회칙이 개정되었을 시 많은 변동이 생기는 두 단체의 대표자가 패널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독립된 위상을 지닌 언론으로서 패널의 선정은 언론사가 가지는 권한이며, 공청회 준비회의에서 언세춘추, 언세통, 언세편집위원회, YBS가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구성을 채택한 것이다. 하나 그들이 총학생회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참석을 거부한 총학생회장의 발언은 억지에 불과하다.

총학생회장은 언세언론출판협의회의 당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은 일괄 언급하지 않으면서 언세편집위원회 내부결합의 게시글과,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패널 참석만을 이유로 공청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절대 공청회 준비회의에 참석한 모든 언론사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총학생회장이 일부 거친 표현을 침소봉대하여 공청회를 준비한 구성원들을 모두 반총학생회력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오류만이 발견될 뿐이다.

무엇이 그리도 감을 것이 많아서 언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사가 마련한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인가.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을 대표해야 하므로 세력 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반대의 의견도 공청회의 자리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갈등을 증폭해야 할 총학생회가 스스로 앞장서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게 총학생회에 반기를 든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과연 총학생회가 그러한 중책을 맡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게 한다. 총학생회장은 자신이 상징하여 학생총투표를 공표한 학생회칙 개정안에 자신이 있다면 공청회에 참석하여 패널들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언세언협의 입장글에 대한 답변」에서 총학생회장은 “언론조차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으며, 언협에게 공청회를 철회하라는 음모론의 부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언론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규정하는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매우 불쾌함을 느낀다. 언세춘추, 언세통, 언세편집위원회, YBS는 학내언론 그 자체로서 공청회 준비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세력에 의해 공청회가 악용된다는 발언은 엄연히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근래 총학생회장은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침소봉대하여 글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습성은 일부의 표현을 전체의 의견인양 확대해석하는 논리적 오류로 판단된다. 만약 상대를 반총학생회력으로 규정하는 딱지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총학생회장에게 학내언론사의 글쓰기 지도를 받을 것을 권해본다.

언세춘추, 언세통, 언세편집위원회, YBS와 언세언론출판협의회의는 공청회 불참선언에 대한 총학생회의 군색한 논리에 유감을 표한다. 또한 공청회가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세력에 의해 악용된다는 표현은 언론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다.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공청회를 준비하는 언론사들은 진행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총학생회의 의견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행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4월 4일의 공청회에 최종 우 총학생회장이 참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007년 3월 31일
언세춘추, 언세통, 언세편집위원회, YBS
언세언론출판협의회의

언협 주관의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및 공개토론회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입니다.

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언협과 언세편집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 언협 주관의 공청회를 거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세편집위원회는 4.30 총투표 공동대책위에서 활동을 하며 언세편집위원회의 명의로 총학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언협은 지난 대표가 “총학생회 자들이 총학 패자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유신개헌을 가리기 위한 아비한 술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3.24)이라며 언론이 아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는 대다수의 보통 학우들과 얘기를 나누어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 뻔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예를 태우고 있던 중에 언세춘추로부터 좌담회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 (1) 학내에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언세춘추와 YBS가 공동 주관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 (2) 공지 시간이 짧아서 좌담회 개최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일부 정치 학생들로 방향성이 꼭 차고 편향된 분위기로 흐르는 것을 우려, 진행자와 패널만 참가하고 학내 스피커 및 PDP 생중계를 통한 스튜디오 진행과
- (3) 패널로 화칙 개정 중 일부분에 속하는 부본(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이해당사자인 총학생회장이거나 동아리연합회장이 아니라 총투표 전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활발히 활동중인 4.30 총투표 공동위 'BIC'의 김선명씨를 요청하였습니다. 더욱이 김선명씨는 2006년 부총학생회장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언세대학생위원회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투표 전반에 대해 다루기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언세춘추에서도 제안 내용에 무리가 없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총학생회는 4월 6일 금요일로 예정된 좌담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저녁에 저희가 전달받

- (1) 언협 의장이 사회를 보며
- (2) 4월 5일 밤에 공지를 하고 6일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고
- (3) 상대 패널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이며

위의 내용은 지난 3월 31일 전달받은 언협 측의 공청회 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언세편집위원회나 언협은 앞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학생회가 패널로 참석해 주기를 요청한 김선명씨는 자신이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언세춘추에 했다고 합니다. 이미 4.30 총투표 대책위원회인 BIC의 유일한 입장글을 올리고 계시면서 작년도 부총학생회장이며 민노당 언세학위에서 활동하는 분이 오로지 개인의 입장이라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하신 점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총학생회는 소통하고자 하는 진의를 가지고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또 한 번의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틀에서는 정상적인 공청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주 이후에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새로 만들어질 공개토론회 패널 신청 게시판을 패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소속과 총투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게시판에 신청해주시면 찬반 양쪽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공개토론회의 패널로 선정하겠습니다. 중립적인 진행을 하며 공개토론회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언세춘추와 YBS가 토론회 내용을 중계 및 보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6
총학생회장 최중우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 참석거부사태에 대한 해설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 및 총투표 발의에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학내언론사들에게 요구받았다. 언론사들이 참석한 준비회의에서는 4월 4일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학생회칙이 개정될 경우 총학생회는 내년부터는 사라지게 되는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초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학내언론사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연세춘추와 YBS가 공청회 참석을 총학생회에 제의하였을 때 최중우 총학생회장은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는 이러한 총학생회장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총학생회는 언론의 광장으로 나오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중우 총학생회장은 「연세언론의 입장글에 대한 답변」에서 연세편집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공대위에 참석했으며,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석하는 것이 가절의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조차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공청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일부의 개인적 견해를 전체의 견해인양 일반화시키는 총학생회의 의도적인 침소봉대라 여겨지며, 공청회 참석거부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판단되어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는 다시 총학생회장의 공청회 참석을 재차 요구하는 「총학생회는 막지않아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총학생회장의 답변이 없자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 총학생회장에게 공청회에 다시 한 번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총학생회장의 언론조차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은 계속 언론을 정치적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세력이 존재한다면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총학생회장은 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으나 분명히 그 세력은 존재한다는 억지성 발언을 계속하였다. 연합이 총학생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판단하고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십 일이 지나도 사과를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총학생회는 사과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중우 총학생회장은 현재의 연합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임 의장이 내부클럽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을 고집내면서 그가 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당시 중운위를 참관하고 있었던 연세편집위원회와 YBS의 한 기자가 항의했으나, 총학생회장은 연합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최중우 총학생회장은 이후 연세춘추가 준비한 좌담회에 대해서도 참석을 거절하면서 「연합 주관의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및 공개토론회에 대한 안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총학생회장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언급을 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으나, 이 글에서 밝혔던 공개토론회는 4월 18일과 25일에 개최된 공청회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학내언론사들이 학우들에게 신속한 보도를 위해 준비한 공청회를 비난리적인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이 개최한 공청회는 파행으로 운영하는 모습은 총학생회가 밝힌 소통하고자 하는 진의는 거짓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성명서를 첨부하였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총학생회의 명예훼손과는 관계없이 학우들에게 공정한 보도의 책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글」에서 학생회칙 개정을 비롯한 총학생회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주도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존중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학생회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학내언론의 공청회 참석제안을 거절한 총학생회장의 태도에서 과연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또한 「연세 학생 사회에 드리는 글」에서는 「학생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원」하며, 총학생회장에게 「기본적인 법상식과 현행 회칙을 무시하는 태도는 회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총학생회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의 태도는 과연 합리적인가? 학내언론의 보도·감시 기능을 총학생회가 무시하는 태도는 「총학생회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연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학내언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일련의 총학생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한다. 특히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한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의 참석을 거부한 총학생회장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자신의 정책의 제시를 통해 당선된 이상, 총학생회의 운영에서 총학생회장의 입장을 완전하게 중립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총학생회의 사업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하고, 총학생회의 입장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가치의 일부이다.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 및 학생총투표 발의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총학생회의 정책자료집 4페이지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8페이지에서는 「중앙권력이 통제된 정보를 통해 구성원들을 세뇌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중우정치를 경계해야」하며,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자료집 28페이지에서는 「소수가 아주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수가 약간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일이다」는 그람시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총학생회는 스스로가 말했던 것들을 지키고 있는가? 학우들의 투표로 당선된 총학생회장의 일련의 행보가 학내언론이 마련한 토론의 기회조차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의 일면도와 정책자료집에서 밝힌 약속을 저버리는 식언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를 준비하였던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와 연세언론출판협의회는 이러한 총학생회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4월 4일의 공청회에 최중우 총학생회장이 참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7년 3월 31일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
연세언론출판협의회

연세언론의 입장글에 대한 답변

총학생회는 연세언론출판협의회(이하 연합)를 존중합니다. 연합은 학우들과 1차적으로 소통하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늘 학우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연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어느 정도 상식을 지키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언론기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속성은 객관성과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위와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지난 27일 중운위 등을 통해 연세편집위원회의 공대위 참석에 대해 총학생회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대위 참석 자료뿐만 아니라 이번 건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보고 너무나 무가치해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어지며 연세편집위원회 이름으로 총학생회 게시판에 선불리 글을 썼다가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 우리는 지금 수세에 몰려있습니다. 너무나 후회하고 다른 운동 단위에 죄송해서 이제는 글쓰기가 두렵지만, 좀더 차분하게 준비한 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글을 준비해야겠지요」(3.24), 「개정안이 훨씬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나아진 점도 있기에 유신체제라고 선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태를 총여/총학 혹은 중운위(운동권)/총학(비운동권)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보다 총학생회의 비리(예산 낭비 의혹, 집행부장 사퇴 책임)나 개정회칙안에서 학운위 중운위 위상 강등 및 소수(학운위원장, 중운위원장, 총학회장)에 권력 집중을 골라지 못하고 놓여지는 편이 지금 전략에서 더 낫다는데 저도 동의」(3.25)

앞글은 지난 3월 22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연세편집위원회의 이름으로 글을 쓴 분이 내부 클럽에서 쓰신 글입니다. 이외에도 연합에서 상당기간동안 대표로 활동하시다가 졸업하신 분이 「총학생회 저놈들이 총여 패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유신개헌을 가리기 위한 아비한 술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3.24)이라며 올리신 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패널로 내정되어 있다는 총여학생회장 과 동아리연합회장은 총투표를 기만하는 논의를 진행한 공대위에 이미 최소 2회 이상 참석했으며 이에 총학생회는 이들이 연세 학생 사회의 대표체 중 하나로써 연세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듣는 총투표를 보아뵈 하려고 한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학우들에

총학생회는 언론의 광장으로 나오라

- 최중우 총학생회장의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 참석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

최중우 총학생회장의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 및 학생총투표 발의는 현재 학생사회를 막론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련의 총학생회의 행보는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이 3월 19일 연세춘추의 「신촌권 총학, 「총여 대체기구 검토중」」 기사를 통해 급작스럽게 노출되었다.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 및 학생총투표 발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학내언론사에서 공정하고 상충적인 보도를 위하여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공청회의 실시를 연세언론출판협의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3월 28일 준비회의를 통해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

위원회, YBS의 주관 하에 연세언론출판협의회가 4월 4일 18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패널로 총학생회장 과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은 3월 29일 연세춘추가 총학생회에 공청회 참석을 제의하였을 때 참여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3월 30일 YBS의 제안 역시 거절하였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대응은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언론사인 연세춘추, 연세통, 연세편집위원회, YBS의 위상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태임에 분명하다.

최중우 총학생회장은 「연세 사회에 드리는

▶1면에서 이야기

이에 근거해 3월 28일, '총투표관리위원회 구성'을 중상안건으로 하는 비상 중운위가 소집된다. 중운위는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운위원 5명을 선출해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고, 4월 2일의 중운위 회의에서 부총학생회장과 사회대, 법대, 치대, UIC의 학생회장을 구성원으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공청회의 준비과정과 WOW총학생회의 자체설명회에서 생긴 일

학생회칙의 개정은 연세학생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월 28일 연세언론출판협의회(이하 연협)는 YBS, 연세춘추, 연세불, 연세편집위원회가 참여하는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 및 총투표 발의 관련 공청회(가칭)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각 언론사의 대표로 참여한 기자들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회칙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운위에서 의결권을 상실하는 두 단체의 대표인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을 패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다. 이에 총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은 참가의사를 표명하나, 총학생회장은 연세편집위원회의 한 편집위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언론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며 공청회 불참을 선언한다.

이에 연협 대표자가 4월 2일의 중운위 회의에 참석해 언론사의 개인구성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여타의 언론사들의 독립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데 대한 사과와 함께 공청회의 형태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겠으니 다시 한 번 공청회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총학생회장은 4월 5일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 공청회에 참여하는 패널은 총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답변을 내놓는다. 총학생회장의 답변에 대해 언론사들은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공청회의 본래목적에 어긋나며, 패널의 선정은 공청회를 주최하는 언론사의 역할이지, 회칙개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총학생회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입장을 표명한다.

총학생회장은 4월 6일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불참하는 대신 자체개시판을 통해 패널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자 중 WOW총학생회가 선정한 패널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

널신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패널선별에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로 자체폐기한다.

결국 WOW 총학생회는 4월 17일 '총학생회장이 단상에 있어 청중들에게 회칙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형태의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공지글을 게시한 후, 바로 다음날인 18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부족한 홍보로 인해 1차 공청회에는 10여 명의 인원만이 참가했다. 공청회의 준비에 있어 WOW 총학생회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총학생회장은 '공청회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2차 공청회에서는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리를 마무리함으로써 1차 공청회는 무산된다.

그러나 4월 18일의 1차 공청회에서 4월 25일 열린 2차 공청회까지 주어진 일주일의 기간 동안 WOW총학생회는 두 개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홍보활동도 벌이지 않았으며, 각급 언론사에 대한 취재요청도 하지 않았다. 2차 공청회 역시 1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행사 진행 도중 총학생회 집행부의 부주의로 건물의 문이 잠겨 참가하려 온 학생들이 공청회가 마무리된 줄 알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총학생회장은 참가자들의 반발에 공청회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재차 인정하며, 공

청회의 위상을 설명회로 격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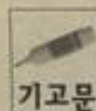
이 날의 설명회에서 학생회칙 재개정안에 대해 '명령사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사퇴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직무수행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총학생회장은 '더 이상 회칙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한다.

의견수렴을 통해 수거한 의견개진서마저도 WOW 총학생회만이 열람하고, WOW총학생회의 의견만이 반영된 재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이를, 연세학생사회는 총학생회칙에 대한 공식적 논의의 자리 한 번 갖지 못한 채 총투표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앙운영위원회 : 단과대 대표자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된다.

확대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각 과와 반의 대표를 더해서 구성된 협의기구.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한 번씩 개최된다.

작성 : 최용락 연세편집위원회 편집장



기고문

총학생회 거짓말은 하지말자

- 총학권력만 강화되는 학생회칙 개정안 -

김세현 동아리연합회장이 총학생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상정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 학생회칙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학생회칙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글을 신문에 함께 게재하게 되었다. 김세현 동아리연합회장의 견해는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의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년 만에 회칙이 바뀝니다." "권력을 분산합니다."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학생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총학생회장의 처절한 용변은 이처럼 설명이나 설득이 아닌 선전문구로 시작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니 좋기는 하다. 그런데 어떻게?

총학생회장이 뱉는 비장의 카드는 바로 회칙 개정. 그 칼을 뽑아들고 외친다. "학생사회 개혁에 하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역시 또 선전문구. 궁극해서 못 참겠다. 그가 말하는 권력 분산이 무엇인지, 예결산 검화가 무엇인지, 그 말들이 정말인지.

궁금증을 풀어줄 유일한 길은 총학생회장이 발의한 회칙개정안을 읽어보는 방법뿐. 하지만 회칙개정안을 읽으면 선전문구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에 실망할 뿐이다. 권력이 분산되고, 예결산이 강화된다고?

권력이 분산되려면, 권한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세부단위의 대표자에게, 궁극적으로는 회원 하나하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로 집중된 권한이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로 분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열광? 개정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중운위가 가지고 있던 권한은 학생회 전반사항에 대한 발의, 의결, 심의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일을 대신하는 것은 확운위가 아닌 총학생회 집행부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집행부회의를 통해 안을 발의하고 의결한다. 확운위는 이를 인준할 뿐, 안을 만들 수조차 없다. 확운위는 중운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보다 상위의 의결기관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둘 모두 권한이 없어질 뿐이다. 권한은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집중된다.

예결산도 마찬가지. 개정안 상에 학생회비 편성권은 오로지 총학생회 집행부에게만 있다. 단과대회장들은 학생회비의 편성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 예산안이 확운위에서 인준되지 않아도 총학생회 집행부는 작년 예산에 준해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 왜 인준을 받는 것일까?) 뿐인가? 확운위가 인준하든 안 하든 최종적으로는 총학생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학생회비를 쓸 수 있다. 어느 단위(예를 들어 단과대나 학부 등)에서 책정 받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도 총학생회 집행부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단위에 돈을 줄지 말지, 혹은 삭감할지를 결정한다. 학생회가 기어가고, 총학생회장은 사장님인가? 총학생회 집행부는 이사회인가?

돈이고 의결이고 총학생회 집행부(그것도 회장이 해임하고 인선하는...)가 다 한다. 단과대 대표자들은 그 상황을 열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확운위에 보고, 시행중지명령을, 그나마도 발의할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의결한 사업 인준에는 확운위 참석(!!)인원의 1/2만반이 넘게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럴 수가! 동의하면 되는데 이는 최악의 경우 전체 확운위원의 1/6밖에 안 되는 수치다. 반면 중운위가 발의한 시행중지명령을 통과시키는 데는 전체 확운위원의 1/2이 필요하다. 차라리 총학생회 집행부를 선거로 뽑든가. 아예 말이나 되나? 어딜 봐서 권력분산인가?

WOW 총학생회는 당선 직후 첫 사업인 학생수첩에 작년의 두 배나 되는 금액인 약 사천 만원을 쓰면서 그들의 통이 얼마나 큰지를 화근하게 보여줬다. 화를 폭발한 중운위원들 그 뒤, 새터 산업생 오리엔테이션, 주류공통구매 등의 사업을 끝까지 따져 수천만 원의 학생회비 낭비를 막아냈다. 매주 중운위를 10시간, 12시간씩 해가면서 말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WOW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몰쓰듯 쓰면서 낭비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나 WOW 총학생회는 중운위의 심의, 의결권을 없애고 총학생회가 다 하겠다고 한다. 그 것이 권력분산이라고 거짓말까지 한다. 대체 어떻게까지 해가면서 학생회칙을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 열 받은 걸까? 학생회는 대동맹같은 총학생회집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개혁할 시간이 있다면 예산집행이나 잘 해라. 교비 9천만 원, 총학생회비 수천만 원, 특공비 수천만 원 다 어디에다 쓰나? 소수 단과대는 배로 큰 총학생회가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한 학기에 1,2백만 원으로 사업해야할 판이다.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원들이 학내인론을 좌지우지한다는니, 총투표를 조직적으로 기만한다는니 퍼뜨린다. 학내인론을 좌지우지? 언론출판협의회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을 패널로 공청회를 열자니 한 그 둘은 싹고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 꼭 짚어서 그나마도 총추, ybs와 패널만 있는 비공개 간담회로 바꾸자고 한 사람이 누군가? 총투표를 조직적으로 기만한다고? 국정원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이야기 어디선가 익명의 제보자란다! 가져와서 자신들의 입장글에 사용해보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건가? 권력분산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총투표를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을 바보 취급하지마라. 누군가 말했다 연세인들은 내이비 약올려가 아니다.

ps : 내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라 하는 말인데 개정안의 모든 의결, 발의, 심의, 예산편성 구조에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회가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달라. 동아리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작성 : 김세현 동아리연합회장